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유튜브**  **구독**

다양한 의정소식을 영상으로 만나요!

유튜브에서 **[고양시의회]**를 검색하세요 🔍



고양시의회, 부여군의회와 상호 우호협약 맺어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6월 30일 부여군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 경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지방의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농상생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하였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협약을 계기로 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양 도시의 공동이익 추구하고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상생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양 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해나갈 계획이다.

고양시의회 공식 SNS 채널 개설,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가 7월 1일부터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의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코로나19로 시민과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 시의회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의회 회기 일정이나 안건 처리 내용 및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까지 주민들과 한 발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길용 의장은 “SNS로 전하는 의회 소식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상식

모기와 거리두기 실천으로  
말라리아 예방하기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얼룩날개모기류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얼룩날개모기 암컷이 말라리아 원충을 전파시킨다. 주로 인천,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오한, 발열, 발한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증상 및 특징이 다르다.

출처: 질병관리청

모기의 주 서식지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풀숲이나 웅덩이 근처 등에서 서식하다가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을 문다. 모기의 활동 환경에 따라 내 집 근처에서도 쉽게 물릴 수 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


주요 증상은 코로나19와 비슷한 발열, 오한, 두통, 오심 등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하루는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는 증상이 없다가 다음날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말라리아는 잠복기(7일~12개월)가 다양하여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발병하기도 한다.

검사 및 치료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RDT)로 15분 만에 간단히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신속하게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모기와 거리두기 4단계

- 1. 야간활동 자제**  
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 질 녘에서 새벽까지 야간활동 자제
- 2. 밝은색 옷 입기**  
모기는 어두운색을 좋아하므로 야외활동 시 밝은색의 옷 착용
- 3.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상처나 얼굴 주변을 피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 사용
- 4. 방충망 정비**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이것만은 주의!

증상 발현 시 몸살감기나 냉방병으로 생각하고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말라리아 진단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나를 물었던 모기가 주변 사람들도 물어 감염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를 받도록 한다.